

KU 글로벌탐사연구

노르딕 프로그램 개별 경험보고서

일어일문학과 2018131437 허평화

노르웨이를 간다고? 릴레함메르는 또 어디야?

사실 노르웨이는 한국인에게 있어 다소 생소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연어가 유명하고, 왠지 날씨가 추울 것 같고, 복지로 유명하다는 북유럽 국가 중 하나라는 것 빼고는 우리는 그다지 노르웨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주변에도 유럽 배낭여행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를 다녀왔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노르웨이를 방문했다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다.

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딕 프로그램에 주저없이 신청서를 넣은 것은, 노르웨이의 '복지 국가' 이미지 덕분이었다. 사람들이 한국의 복지 정책을 비판할 때 흔히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의 예시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노르웨이의 선구적인 육아 복지 정책도 만만치 않게 유명하다. 이전부터 복지와 사회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터라, 이번 노르딕 프로그램이 나에게 무언가 해답을 줄 것 같은 느낌에 지원서를 넣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대한 책을 한 두 권 씩 읽어 가기 시작했다. Nansen Academy 가 위치한 지역인 릴레함메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도시의 이미지를 기대하고 가면 안되며, 가면 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떠난 노르웨이는 내 상상 그 이상이었다. 피요르드를 비롯한 자연경관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나라 전체에 여유와 안정된 분위기가 맴돌았다. 나 혼자 가는 첫 여행이라 소매치기를 걱정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사회적 신뢰도 상당히 높다.) 내가 여행하며, 그리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나의 질문과 부탁에 친절하게 대응해주었다. 릴레함메르 또한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지만 아늑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예상보다 볼 것이 많았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그리드 운셋의 생가를 들르기도 했고, 로컬 샵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하이킹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릴레함메르에서의 첫날 밤에 본 호수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저 들렀다 가는 외국인인 내가 복지국가의 일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는 없었지만, NEWDAY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학생들의 대화와 강의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많은 걸 알고 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육은 무상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기에 국민들은 웬만해서는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르웨이 국민들은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를 자랑스러워 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 모두 복지 국가의 면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른 그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보다도 한국에서 보지 못한 새롭고 신기한 모습들을 많이 경험한 탓이었다. 귀국한 지 벌써 일 주일 가까이 흘렀지만,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은 여러모로 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림>밤에 바라본 릴레함메르의 호수

Folk high school과 Nansen Academy

대략 8박 9일의 기간 동안 Nansen Academy에서 머물렀다. 숙박은 1인 1실 제공으로, 세탁기/건조기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고 상당히 쾌적했다. 삼시세끼 제공되는 식사 또한 맛있었다. (노르웨이의 물가를 감안한다면 NEWDAY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참여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아카데미의 모두가 참여자를 환영해주고 잘 대우해주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 Nansen Academy에서의 점심

이러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제외하고도, Nansen Academy에서의 9일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Nansen Academy는 노르웨이의 folk high school이다. Fol 노르웨이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대부분 Gap Year을 두고 그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다. 이러한 Gap Year에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다양한데, folk high school 또한 그 선택지 중 하나다. 말하자면 Folk high school은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 다닐 수 있는 학교인 것이다.

Nansen Academy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folk high school이다. 학교의 설립 이념부터 평화 교육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에서 경시되고 있는 인문학을 학교의 주요 커리큘럼으로 내세운다. 학생들은 시험과 성적의 압박없이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강의를 듣고 또래 학생들과 활발한 토론을 개진한다. 한 기수 당 약 8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기숙사를 포함한 단체 생활을 하기에 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면면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Nansen Academy는 마치 정의를 추구하며 묵묵히 행동하는 지식인을 연상시킨다. Nansen Academy의 운영진과 핵심 인물들은 모두 평화를 주요 가치로 믿고 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인물들이었다.

NEWDAY 프로그램 개최사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연약하고 위험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과 부조리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를 이해하며 힘써야 한다. 다르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이 말과 함께 NEWDAY 프로그램은 막을 올렸다.

NEWDAY 프로그램

NEWDAY 프로그램에는 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했다. Nansen Academy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노르웨이 그룹, 후단 대학교와 상동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중국 그룹,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한국 그룹 총 세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동양과 서양 간의 대화라는 테마답게,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국제 사회 및 정치에 대한 강의와 노르웨이/중국/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노르웨이, 중국, 한국의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강의의 질 또한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듯한 NEWDAY 프로그램의 취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강의를 듣고,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강의자에게 주저 않고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은 강의 시간 이후에도 이어졌다. 참여자들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 강의 이후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어김없이 서로 이전 강의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관련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타 자유시간에는 다른 참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느낀다. Nansen Academy의 뒷뜰에서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교내 도서관의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는 노르웨이 화합의 정신이 ‘Hygge’를 실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온 참여자와 인권 얘기로 토론하기도 했고,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한바탕 수다를 떨기도 했다. 잔디밭에 같이 드러누워서 밤하늘을 보며, 자신이 온 지방에서 본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 친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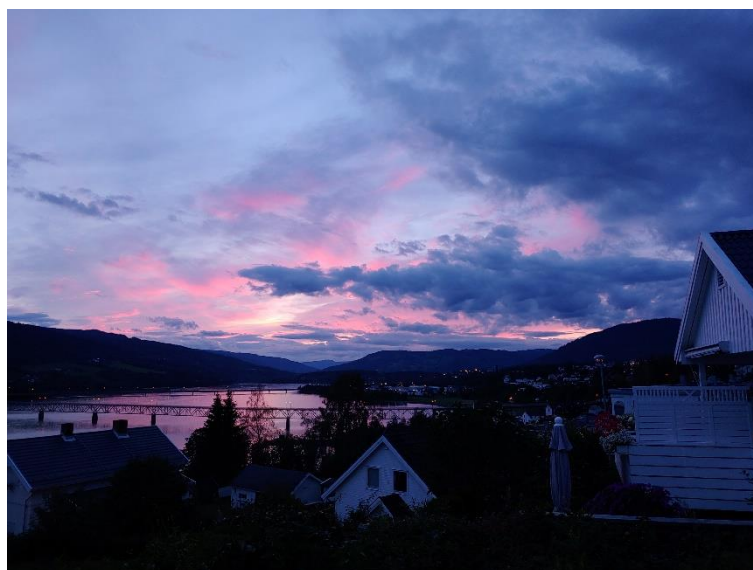
작은 마을 릴레함메르의 Nansen Academy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너무 좋아서 어쩌면 꿈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평화 교육을 실천한다는 Nansen Academy의 신조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동시에 우리는 비슷한
면모 또한 가지고 있다. 다르고 비슷한 개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던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이 곳으로 돌아오니, 막연하지만 연약하고 위험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끝-



<그림>박물관으로 견학 가던 날 찍은 사진



<그림>모두 함께 웃고 떠들던 가든 파티 날의 저녁, 노을